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취약청소년의 취약성에 따른
자립준비도의 차이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이 용

2014년 8월

취약청소년의 취약성에 따른 자립준비도의 차이

지도교수 김 성 봉

이 용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8월

이용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년 8월



<국문초록>

취약청소년의 취약성에 따른 자립준비도의 차이

이 용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에서는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에 따라 자립준비 수준과 자립준비 하위요인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취약청소년의 취약성에 따라 자립준비도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의해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첫째, 취약청소년의 취약성에 따라 자립준비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이에 하위 가설은 취약청소년의 취약성에 따라 자립준비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둘째로, 취약청소년의 취약성에 따라 자립준비 하위요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이에 하위 가설은 취약청소년의 취약성에 따라 자립준비 하위요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취약청소년을 구조적 취약성, 경제적 취약성, 학업적 취약성, 규범적 취약성으로 하위집단을 구분하였으며, 각 하위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비비례 유층표집을 실시하였다. 조규필(2013)이 개발한 자립준비도 척도에서 자립의지, 진로직업역량, 경제적 관리, 주거일상생활관리, 사회적 기술, 학업관리 6개의 영역을 재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본 논문은 2014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수집된 자료는 SPSS 18.0K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청소년의 취약성에 따라 자립준비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구조적 취약성, 학업적 취약성, 규범적 취약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취약청소년의 취약성에 따라 자립준비 하위요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취약성의 유무와 각 하위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는 취약청소년의 취약성에 따른 자립준비 수준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자립지원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목 차

| | |
|------------------------------------|----|
| I. 서 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2. 연구 문제 | 5 |
| II. 이론적 배경 | 6 |
| 1. 청소년 자립 | 6 |
| 가. 청소년의 자립준비도 | 6 |
| 나. 청소년의 자립준비 하위요인 | 8 |
| 2. 취약청소년 | 13 |
| 가. 취약청소년 | 13 |
| 나. 취약성 | 14 |
| III. 연구방법 | 17 |
| 1. 연구대상 | 17 |
| 2. 측정도구 | 18 |
| 3. 자료수집 및 절차 | 18 |
| 4. 자료 분석방법 | 19 |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20 |
| 1. 취약성에 따른 자립준비도 차이 | 20 |
| 가. 취약성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도 차이 | 20 |
| 나.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 자립준비도 차이 | 21 |
| 2. 취약성에 따른 자립준비 하위요인 차이 | 22 |
| 가. 취약성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 하위요인 차이 | 22 |
| 나.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 자립준비 하위요인 차이 | 28 |
| V. 논의 및 결론 | 32 |
| 참고문헌 | 39 |

부 록 42

표 목 차

| | |
|---|----|
| <표Ⅱ-1> 자립준비의 개념 정리 | 8 |
| <표Ⅲ-1> 인구학적 통계 | 17 |
| <표Ⅲ-2> 자립준비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 18 |
| <표Ⅳ-1> 취약성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도 차이 | 20 |
| <표Ⅳ-2> 각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 자립준비도 차이 | 21 |
| <표Ⅳ-3> 구조적 취약성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도 차이 | 23 |
| <표Ⅳ-4> 경제적 취약성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도 차이 | 24 |
| <표Ⅳ-5> 학업적 취약성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도 차이 | 25 |
| <표Ⅳ-6> 규범적 취약성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도 차이 | 27 |
| <표Ⅳ-7>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의 자립준비 하위요인 차이 | 28 |
| <표Ⅳ-8>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 자립의지 요인의 차이 | 29 |
| <표Ⅳ-9>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 사회적 기술 요인의 차이 | 30 |
| <표Ⅳ-10>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 학업관리 요인의 차이 | 31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립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섬’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자립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자립의 시기와 준비 과정에 개별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청소년기 때 성인기로의 원활한 자립이행을 위한 적절한 자립준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시기에 적절한 자립준비 과정을 거치지 못할 경우 성인기로의 진입이 지연될 뿐 만 아니라 성인기에 들어서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빈곤, 범죄 등 많은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자립준비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자립을 적절히 준비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일반청소년에 비해 취약청소년들의 자립준비가 더욱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배주미, 정익중, 김범구, 김영화, 2010).

조규필(2013)의 정의에 따르면 취약청소년은 적절한 가정의 돌봄이 부족하여 심리·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 교육 및 고용 기회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말한다.

이러한 취약청소년들은 그들이 가진 취약성으로 인하여 적절한 자립준비를 위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일반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저학력, 사회적응력 부족, 진로동기 부족, 낮은 자존감 등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진출 및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노혁, 2004; 신혜령, 2001; 오승환, 2006).

이러한 취약청소년에 대한 자립 연구는 주로 시설보호 청소년이나 빈곤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이는 시설보호 청소년들이 적절한 준비 없이 퇴소를 함으로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가정해체가 많아지면서 결손가정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강복정(2002)은 시설보호 청소년들은 대부분 근원가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형성할 가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시설 보호 청소년들에 대한 외부의 선입견으로 인해 취업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변은영(2007) 또한 자신의 연구에서 배경과 인맥을 중요시 하는 한국사회의 여건상 특별한 연고 없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자립해야 하는 현실로 인해 취업의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고 이는 경제적 자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김희성(2002), 노혁(2004), 최경아(2007)의 연구에 따르면 빈곤가정 청소년들은 가정에서의 빈곤적 특성을 그대로 이어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낮은 소득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복지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빈곤의 세대전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또한, 박창남(2009)은 빈곤가정 청소년들은 가정의 빈곤상황으로 인해 비빈곤가정 청소년에 비해 일찍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되고 근무시간이 더 많다고 밝혔다. 비빈곤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진로 준비가 부족해짐에 따라 장기적으로 비빈곤가정 청소년에 비해 구직경쟁에서 불리한 위치가 서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시설보호 청소년이나 빈곤가정 청소년들은 자신의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가지지 못함에 따라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으며, 2010년 전후 으로는 이들 뿐만 아니라 가출청소년, 소년원 퇴원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등 적절히 자립 이행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다.

강민정(2000)은 사회적 지지가 가출청소년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가출청소년들 중에는 부모의 학대나 방임, 유기로 인하여 가정 복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당한 사회인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출청소년 자신의 자립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가출청소년의 자

립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김남욱(2009)은 가출청소년을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으나 복귀하지 않는 청소년과 어쩔 수 없이 복귀할 수 없는 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복귀할 수 없는 청소년들의 자립에 더욱 관심을 가졌다. 이에 따라 가출 청소년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취업준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직업관,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능력, 학업관리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사하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2005년-2008년간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2005년 0.7%이었던 학업중단율은 2008년 0.96%로 크게 상승하였고 매해 늘어가고 있다. 학업중단 원인으로서는 학교부적응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업중단이 발생한 시점에서부터 국가가 그들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각종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오승근, 2009).

따라서 시설보호 및 빈곤가정 청소년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취약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소극적인 현금지원 정책 위주에서 점차적으로 적극적인 자립지원으로 변화함으로써 정책 및 연구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배주미, 정익중, 김범구, 김영화, 2010).

취약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경제적 자립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신혜령(2001)은 자신에게 편안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속의 의미 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연계를 가지는 자기 충족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취약청소년 자립지원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해 여러 청소년 전문기관에서 취약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취약청소년 자립지원에 따른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복지법 제 8조(자립지원) 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지원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5장(위기청소년지원)에서는 학업중단 및 가출 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등 위기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함으로써 일반청소년보다 취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자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적근거가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취약청소년들을 우선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취약청소년들의 자립 준비를 돕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보호대상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현금정책인 디딤씨앗통장이 있으며, 취약계층의 취업 및 직업훈련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를 고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취약청소년의 효과적인 학업관리 및 학업복귀를 위하여 청소년 유관기관에서 학습멘토링 사업을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각기 전문성을 활용하여 취약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일부 영역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 통합적인 자립지원을 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에서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및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전문적인 자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취약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립준비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맞춤형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취약청소년의 개념은 학문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각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취약청소년을 구분하고 있으며, 취약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선행연구에서도 각 선행연구에서 정의하는 자립의 개념에 따라 취약청소년들의 자립에 필요한 요인들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하여 취약청소년들에게 자립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원 대상자의 구분이 모호하고, 지원이 필요한 자립 요인들이 명확하지 않아 취약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자립준비 수준을 파악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취약청소년들의 특성을 통해 취약청소년들이 지닌 취약성을 파악하고, 자립 준비에 필요한 제 요소들을 정리하여 각 취약성에 따라 자립준비 수준과 자립준비 하위요인간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토대 실천현장에서 취약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자립준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취약청소년의 취약성과 자립준비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취약청소년의 취약성에 따라 자립준비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취약청소년의 취약성에 따라 자립준비 하위요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취약청소년의 취약성에 따라 자립준비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취약청소년의 취약성에 따라 자립준비 하위요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취약청소년의 취약성에 따라 자립준비도와 자립준비 하위요인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적 기초로 청소년의 자립준비도, 자립준비 하위요인, 취약청소년 및 취약성의 개념 및 분류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청소년 자립

가. 청소년의 자립준비도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다. 물론 이러한 준비를 반드시 청소년기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립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인기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빈곤층·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적절한 자립준비 과정은 성인기의 자립에 큰 영향을 준다. 이에 청소년 자립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있으며, 조규필(2013)은 청소년에게 있어 자립의 의미에 대해 ‘경제적·심리적·사회적 독립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청소년기의 자립적 과업을 성취해 나가는 자립준비 과정’으로 요약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자립은 성인기에 이르러 정당한 지위를 갖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자립 준비라 정의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기술되어 있는 자립준비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특히 취약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는 시설보호 청소년 또는 학업중단 청소년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가 적극

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이들을 취약청소년으로 통합하여 연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취약청소년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취약청소년에 대해 연구자가 조작적 정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따라 각 연구에서 정의되는 자립의 개념에도 일부 차이가 있었다. 또한 시설보호 청소년이나 학업중단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자립 연구에서도 자립 개념에 일부 차이가 있었다.

조규필(2013)은 이러한 차이를 국내외 연구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인용하여 <표Ⅱ-1>에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박미양(2005)은 그룹홈 거주 청소년들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에서 자립은 성공적인 상호의존의 성취로 자신의 ‘독립된 상태’를 이끄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자립준비 개념 및 하위요인은 신혜령(2001)의 정의를 재인용하고 있다.

정문진(2012)의 가출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에서는 신혜령(2001)의 정의를 인용하면서 가출청소년 자립상태를 이끌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유형의 자원관리기술능력, 무형의 자기능력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이 밖에도 개인의 자존감, 사회적 지지의 대상 등이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각 선행연구에서는 자립준비의 수준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자립준비도를 정의하고 있으나, 연구마다 자립에 필요한 하위요인이 자립의 개념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 따라 자립준비도의 내용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조규필(2013)은 ‘자립준비도란 청소년이 경제적·심리적·사회적 독립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청소년기에 수행해야 할 자립적 과업의 성취 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표Ⅱ-1과 같이 선행연구를 정의하고 있다.

표Ⅱ-1 자립준비의 개념 정리

| 연구자 | 용어 | 자립준비개념 |
|-------------|--------|--|
| 신혜령(2001) | 자립준비 | 자원을 습득, 이용하고 할당하는 자원관리기술과 계획, 의사결정, 책임감, 대인관계기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기관리기술에 대한 준비 |
| 김희성(2002) | 자립준비 | 빈곤가정 청소년들이 성인기를 준비하는 과정, 특히 빈곤의 세대전승을 방지하고,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심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자기충족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하위요인: 사회적 발달, 교육적·직업적 발달, 도덕적 발달, 돈·주거관리, 자립의지) |
| 박은선(2005) | 자립생활준비 | 혼자의 힘으로 독립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경제적 독립상태의 준비 (하위요인 : 자립의지, 생활과업 수행기술, 대인관계기술, 문제해결기술, 취업여부, 학업기술, 직업기술) |
| 손혜옥 등(2008) | 자립준비도 | 청소년이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퇴소 후 직업을 갖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기술훈련을 인식시켜 독자적인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하위요인 : 자립의지, 생활관리, 자존감) |
| 정경미(2009) | 자립준비 |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를 통해 효율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기술’ 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기술’ 에 대한 준비 |

* 조규필(2013)의 내용 재인용

나. 청소년의 자립준비 하위요인

자립준비 하위요인이란 청소년의 자립을 필요한 세부적인 자립준비 요소들을 공통적인 요소별로 범주화 한 것이다.

신혜령(2001)은 자립 하위요인을 스스로 자원을 습득하고 이용하는 자원관리기술과 의사결정, 책임감, 대인관계기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기관리기술로 나누고 있으며, 박은선(2005)은 자립의지, 생활과업 수행기술, 대인관계기술, 문제해결기술, 취업여부, 학업기술, 직업기술로 세분화하고 있다.

오수생, 변상해(2012)은 가출청소년의 자립생활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변인 연구를 통해 가출청소년의 자립 준비에 진로준비행동, 진로성숙, 자립의지가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문제해결능력의 중요성을 시사 하였다.

이경상(2011)은 시설보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지원을 시사 하면서 건강관리, 자아성장, 일상생활관리, 성·결혼·부모교육, 대인관계, 자금관리, 주거마련관리, 지역사회자원활용, 진로탐색 및 취업, 직장생활유지 등 10개 영역으로 나누어 훨씬 세밀하게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빈곤, 시설보호, 가출, 학업중단 등 청소년 특성에 따라 자립 지원 영역을 범주화하여 하위요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이들의 특성을 통합하여 지원될 수 있는 통합모델 연구가 진행되면서 국내외 문헌을 통해 도출된 자립준비 구성개념들을 공통적인 제 요소별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취약청소년 자립지원 모형을 개발하면서 양육시설·그룹홈·가정위탁·쉼터·학업중단 청소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자립 지원 서비스를 연구하여 9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9가지 자립지원 영역은 주거, 일상생활기술 및 건강관리, 심리/정서, 사회성 발달, 학업, 진로(취업), 경제기술, 자원 활용, 원가족과의 연계로 구성된다(배주미, 정익중, 김범구, 김영화, 2010).

가장 최근에는 조규필(2013)의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자립의지, 진로·직업역량, 경제관리, 사회적 기술, 주거·일상생활관리, 건강관리, 학업관리의 7가지 하위요인을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립준비 하위요인은 조규필(2013)의 분류를 참고하여 자립의지, 진로·직업역량, 경제관리, 사회적 기술, 주거·일상생활관리, 학업관리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조규필(2013)이 제시한 건강관리 영역은 자신의 신변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안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보호체계에서 이탈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자립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호체계의 소속 여부에 따른 자립준비 수준 차이 검증에 목적을 두지 않고 있으며, 취약청소년간의 심리·정서적 안정 수준의 차이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강관리 영역을 제외하였다.

1) 자립의지

많은 연구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자립의지가 중요한 내적 동기로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설보호 청소년의 자립의지에 대해서는 ‘자립을 위한 개인적인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의지, 사회구성원들과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 변화하는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자 하는 의지’ (조기곤, 2009 재인용)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룹홈 청소년에게 있어 자립의지를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가 삶을 계획하고 설계하여 삶의 주체로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최경아, 2007 재인용)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자립의지는 스스로 자립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준비 자세를 갖는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립의지가 주로 빈곤가정 및 시설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요인이 보는 견해가 많다.

자립의지는 자립준비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자립준비도에서 중요한 내적 동기로 작용된다.

2) 진로·직업역량

진로·직업역량이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진로탐색이나 준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말한다(조규필, 2013).

직업은 자립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적성, 능력, 성격 등 내적 직업가치와 그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모님의 기대, 급여

수준 등의 외적 직업가치 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로결정 및 직업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취약청소년의 경우 일반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탐색의 기회가 적어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내적 직업가치가 탄탄하게 형성되지 않고, 외적 직업가치만 강조되어 직업을 선택할 경우 진로결정 효능감이 떨어질 수 있다(최보영, 2013).

따라서 진로·직업역량 수준은 통해 적절한 직업탐색과정이 제안될 수 있다.

박은선(2005)의 연구에서도 직업기술 준비 정도는 시설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영역이며, 직업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습득과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퇴소 후 직업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갖추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진로·직업역량은 자립이 당면한 청소년에게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3) 경제관리

경제적 자립은 자립의 필수 요인으로,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주어진 돈을 적절히 소비하고 저축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조규필, 2013).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이 소비시 합리성 수준이 낮고(권미화, 이기춘, 2000 재인용) 과시적 소비나 대리 만족적 소비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최순중, 2004 재인용).

홍진희(2007)는 청소년기의 충동적인 소비습관은 성인기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낭비적인 소비생활을 지양하고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이 청소년기에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올바른 경제생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립생활의 유지가 힘들 뿐 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생활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4) 사회적 기술

청소년기에는 주로 가정, 또래 집단 안에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

을 하지만 성인기로 진입하면서 직장 등 다른 조직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면 이때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성은 공동체내의 상호작용으로 정의될 수 있는 대인관계이며,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사회적 응집력을 보이며 존속하는 능력이다.(김배현, 2000) 사회성 발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적 기술의 발달은 자립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술은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을 갖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상호 간에 유익한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조규필, 2013).

광의적인 개념으로 사회적 기술은 단순히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자신한테 유익한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할 줄 아는 기술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

5) 주거·일상생활관리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주거에 대한 부분은 시설보호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자립지원시설에서는 취업을 하였거나 취업 준비 중인 퇴소청소년들에게 주거 및 생활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전세주택 지원서비스는 25세까지 주거지원을 하며 영구임대주택 및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주거지원이 추진될 예정이다(배주미, 정익중, 김범구, 김영화, 2010).

전국의 취약청소년 자립지원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주미 등(2010)의 델파이 조사결과에서도 취약청소년들에게는 전세주택이나 임대주택 지원, 전세자금 지원, 주거지원 관련 정보제공, 부동산 계약관련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조규필, 2013).

자립을 준비함에 있어서 주거는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일상생활 기술은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 요인이다.

6) 학업관리

취약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학업성

취도가 낮다는 것은 국내외 다수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또한 낮은 학업 성취도는 사회진입을 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로 인해 빈곤이나 범죄 양상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 취약계층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된다.

신혜령(2001)은 시설청소년의 학업수행 정도는 취업과 연결되며, 퇴소 후의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학업지원은 취약청소년 자립을 위해 지원되어야 할 영역이다. 또한 학업성적은 자립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빈곤청소년들도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주거 및 생활환경 열악, 문화적 결핍과 교육경험의 부족,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부족으로 취약당시부터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은 학교의 인위적인 조치가 없이는 계속 뒤떨어진다(강영주, 2009).

학업은 성인기로 진입하면서 사회 진출 및 취업의 기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서 청소년기의 이행해야 할 중요한 자립요인 중에 하나이다.

2. 취약청소년

가. 취약청소년

취약청소년의 자립지원에 대해 강조되는 것과 달리 취약청소년의 학문적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정책적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위기청소년’의 개념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취약청소년의 용어를 많이 활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과 취약청소년은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개념적 차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개념의 대상이 동일한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취약청소년을 ‘적절한 가정의 돌봄이 부족하여 심리·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처해있고, 이로 인해 교육 및 고용 기회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 청소년’라고 조작적 정의를 하고 있다(조규필, 2013).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위기로인이라고 보지 않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식하여 ‘취약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나. 취약성

취약성의 사전적 의미는 ‘무르고 약한 성질’이다. 이에 이인숙(2004)은 취약성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혹은 발달 단계에 장기간 또는 일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개인이나 가족, 사회적 수준에서 나타내는 부정적 특성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취약성이라는 용어를 통해 자립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유형을 구분하고자 한다.

취약청소년의 취약성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취약성의 판단기준에 따라 취약청소년을 유형별로 범주화하여 조작적으로 정의내린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저연령 비진학, 거주지, 고교중퇴, 소수인종, 미혼모 특정 연령기의 편부모가정, 중퇴 가능성이 큰 재학생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교육수준, 구직활동의 경험여부, 직업훈련의 경험여부, 결혼여부, 취업의지를 기준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고 있다.(노경란 외, 2008).

국내에서는 저연령 비진학 청소년, 장기실업 청소년, 청소년 범죄 또는 위기에 놓인 위기청소년, 취업의지가 없는 청소년으로 요약하고 있다.

(변숙영, 2009) 최근 연구에서는 취약청소년의 취약성 판단기준으로 교육수준, 경제적 형편, 취업능력, 가정환경, 기타 개인·환경적 위험 등의 요소들이 설명되어지고 있으며, 여러 요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각자 처한 환경과 상태에 따라 주요 대상을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빈곤가정청소년, 시설보호 및 퇴소청소년,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으로 범주화하였다(조규필, 2013).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통해 논의되는 취약성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구조적 취약성, 경제적 취약성, 학업적 취약성, 규범적 취약성으로 취약성을 구분하고 조작적 정의를 하고자 한다.

1) 구조적 취약성

구조적 결손을 경험한 청소년의 특성은 주로 시설보호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데 국내에서는 시설보호 청소년을 아동복지법 제 3조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혹은 보호가 양육할 능력이 없어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 지원시설 등에서 보호·지원하고 있는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모성실조에 인하여 파괴적인 인간관계, 솔직한 느낌 노출 거부, 친밀감 결여, 정상적인 정서적 반응의 부족, 정직하지 못하고 꾀대가 없는 태도, 도박현상, 집중력 결여의 특징을 보이고 주의가 산만하거나 정서불안을 보이기도 한다(변은영, 2008 재인용).

구조적 결손으로 인하여 부모와 분리되는 경험을 통해 정신적 충격과 혼란 등으로 사회적응력이나 자립기술습득 면에서 취약함을 보이는 특성으로 구조적 취약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경제적 취약성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따를 만한 역할모델을 찾지 못하거나,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 성공적인 자립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빈곤계층 청소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사회적 반항심, 강한 부정적 의식이 작용할 수 있으며, 품행문제, 또래갈등 등 부적응적 행동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노혁, 2004).

또한 빈곤은 세대에 전승되기 쉽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자립 준비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성인기의 진입 이후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빈곤으로 인하여 문화적 결핍, 교육 기회의 제한됨으로서 자립 이행에 어려움을 보이는 특성을 경제적 취약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학업적 취약성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립을 위한 주변 자원체계가 부족하고 정규 교육 및 자립준비 기회가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성공적인 자립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현재 청소년의 직업진로교육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대부분 부모의 보호와 정규교육을 통한 진로지도를 전제로 구성된 프로그

램이 많기 때문에 정규교육 과정에서 이탈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주변의 도움 없이 성인이 될 준비를 하다 보니 목표의식이 희박하고, 학습수준이 낮으며 진로 관련 정보 획득의 기회도 적은 반면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가 많아 충분한 준비 없이 근로현장에 뛰어들어 일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쉽다(권해수, 김범구, 허진석, 윤현선, 2008).

이렇게 개인, 가정, 학교 사회적 이유 등의 자발적·비자발적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학교를 도중에 그만두게 되어 정규교육 과정에서 이탈함으로써 원활한 자립준비 이행을 저해하는 특성을 학업적 취약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4) 규범적 취약성

비행청소년들은 자기나 타인을 비롯한 상황을 현실적·객관적으로 지각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경험을 왜곡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고 도덕성과 가치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개인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지속적으로 좌절되는 것을 경험하고 일반청소년에 비해 자아개념이 대체로 부정적이다(구본용, 1992).

진경숙(2010)은 비행청소년을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보호 교육기관에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보호관찰 처분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행동이나 행동장애 혹은 부적응 행동을 하거나, 규범의식이 미흡하여 대인관계나 사회적응에 문제를 보이면서 자립 이행을 저해하는 특성을 규범적 취약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는 만 15세~24세의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집단을 연구자가 조작적 정의를 한 취약성으로 하위집단을 구분하였으며, 하위집단이 각 취약성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구조적 취약성은 시설보호 청소년, 경제적 취약성은 수급 대상 청소년, 학업적 취약성은 도내 학교 밖 청소년, 규범적 취약성을 보호관찰 처분 청소년들로 비비례유층 표집을 실시하였다.

각 하위집단의 표본 수를 60명으로 하여 설문지 총 240부를 배포하였으며 불성실한 설문지 40부를 제외하고 200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통계는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인구학적 통계

| 구 분 | | 빈 도(명) | 백 분 율(%) |
|-----------------------|------------|--------|----------|
| 성별 | 남 | 121 | 60.5 |
| | 여 | 79 | 39.5 |
| 구조적 취약성 (시설보호 유무) | 일반가정 청소년 | 148 | 74 |
| | 시설보호 청소년 | 52 | 26 |
| 경제적 취약성 (수급유무) | 비수급 대상 청소년 | 122 | 61 |
| | 수급 대상 청소년 | 78 | 39 |
| 학업적 취약성 (학교 재학 유무) | 재학청소년 | 98 | 49 |
| | 학교 밖 청소년 | 102 | 51 |
| 규범적 취약성 (보호관찰 유무) | 경험이 있는 청소년 | 81 | 40.5 |
| | 경험이 없는 청소년 | 119 | 59.5 |
| 전체 | | 200 | 100.0 |

2. 측정도구

취약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는 조규필(2013)의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조규필(2013)의 자립준비도 척도는 하위영역으로는 7개 영역, 16개 요인, 5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하위영역 중 ‘건강관리’ 영역을 제외한 6개 영역, 14개요인, 4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하위영역은 자립의지, 진로직업역량, 주거일상생활관리, 경제관리, 사회적 기술, 학업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형식은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 ‘다소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조금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의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관련 영역의 자립 준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각 척도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94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자립준비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 하위 요인 | 문항수 | 문항 | 신뢰도(조규필) | 신뢰도(연구자) |
|-----------|-----|-------|----------|----------|
| 자립의지 | 4 | 1-4 | .81 | .74 |
| 진로직업역량 | 12 | 5-16 | .83 | .87 |
| 경제관리 | 9 | 17-25 | .76 | .90 |
| 주거일상생활 관리 | 13 | 26-38 | .84 | .82 |
| 사회적 기술 | 6 | 39-44 | .81 | .91 |
| 학업관리 | 4 | 45-48 | .84 | .86 |
| 전체 | 50 | | .94 | .94 |

3. 자료수집 및 절차

2014년 3월 4일부터 시작하여 2014년 4월 20일까지 제주도 내 취약청소년들 가운데 연구자가 분류한 하위집단에 따라 각 60명에게 자립준비도 척도를 실시하였다.

각 하위집단의 특성이 잘 대표될 수 있도록 구조적 취약성은 도내 2개 보육 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경제적 취약성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소년 유관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규범적 취약성은 보호관찰소의 협조를 통해 보호관찰 처분청소년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학업적 취약성은 검정고시 준비를 돕는 도내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가 지원 중인 취약청소년 중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지 배포하였다.

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취약성에 따른 자립준비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합평균을 산출하고, t검증을 통하여 취약성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도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Tukey기법을 이용한 사후분석을 실시하여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셋째, 취약성에 따른 자립준비 하위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합평균을 산출하고, t검증을 통하여 취약성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 하위요인간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F검증과 Tukey기법을 이용한 사후분석을 실시하여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 자립준비 하위요인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취약성에 따른 자립준비도 차이

가. 취약성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도 차이

취약성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취약성을 지닌 집단과 지니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IV-1과 같다.

표 IV-1 취약성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도 차이

| 구 분 | | 빈 도(명) | 평균(점) | 표준편차 | t값 |
|------------|------------|--------|-------|------|---------|
| 구조적 취약성 | 일반가정 청소년 | 148 | 3.00 | .44 | -3.547* |
| | 시설보호 청소년 | 52 | 3.27 | .51 | |
| 경제적 취약성 | 비수급 대상 청소년 | 122 | 3.04 | .42 | -1.335 |
| | 수급 대상 청소년 | 78 | 3.13 | .54 | |
| 학업적 취약성 | 재학청소년 | 98 | 3.25 | .48 | 5.521* |
| | 학교 밖 청소년 | 102 | 2.90 | .40 | |
| 규범적 취약성 | 경험이 없는 청소년 | 119 | 3.16 | .51 | 3.261* |
| | 경험이 있는 청소년 | 81 | 2.94 | .37 | |
| 전체 | | 200 | 3.07 | .47 | - |

*p<.05

연구대상자의 자립준비도를 취약성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측정한 결과, 전체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도는 3.07점이 나왔다. 각 취약성에 따른 자립준비도는 구조적 취약성이 3.27점, 경제적 취약성이 3.13점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으며, 학업적 취약성 2.90점, 구조적 취약성 2.94점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t값을 검토해 본 결과 경제적 취약성을 제외한 모든 취약성에서 p<.05수준에

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은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립준비도가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3.547, p<.05$)

학업적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은 학업적 취약성을 지니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립준비도가 낮았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5.521, p<.05$)

규범적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은 규범적 취약성을 지니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립준비도가 낮았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3.261, p<.05$)

나.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 자립준비도 차이

취약성 유무에 따라 자립준비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각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 자립준비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ukey기법을 이용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각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 자립준비도 차이

| 다중비교 | | | | |
|--------------|---------|----------|------|------|
| 종속 변수: 자립준비도 | | | | |
| (I)취약성 | (J)취약성 | 평균차(I-J) | 표준오차 | 유의확률 |
| 구조적 취약성 | 경제적 취약성 | .140 | .081 | .311 |
| | 학업적 취약성 | .367* | .076 | .002 |
| | 규범적 취약성 | .326* | .080 | .002 |
| 경제적 취약성 | 구조적 취약성 | -.140 | 0.81 | .311 |
| | 학업적 취약성 | .227* | .067 | .005 |
| | 규범적 취약성 | .186* | .071 | .048 |
| 학업적 취약성 | 구조적 취약성 | -.367* | .076 | .002 |
| | 경제적 취약성 | -.227* | .067 | .005 |
| | 규범적 취약성 | -.041 | .066 | .928 |
| 규범적 취약성 | 구조적 취약성 | -.326* | .080 | .002 |
| | 경제적 취약성 | -.186* | .071 | .048 |
| | 학업적 취약성 | .041 | .066 | .928 |

* $p<.05$

각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 자립준비도 차이를 측정한 결과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은 학업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평균차=.367, $p<.05$)과 규범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평균차=.326, $p<.05$)보다 평균이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은 학업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평균차=.227, $p<.05$)과 규범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평균차=.186, $p<.05$)보다 평균이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과 경제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에는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학업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과 규범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취약성에 따른 자립준비 하위요인 차이

가. 취약성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 하위요인 차이

취약성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도 하위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적 취약성, 경제적 취약성, 학업적 취약성, 규범적 취약성의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 하위요인의 수준을 알아보았다.

1) 구조적 취약성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 하위요인 차이

구조적 취약성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 하위요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과 지니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구조적 취약성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도 차이

| 자립준비 하위요인 | 대상 | 평균(점) | 표준편차 | t값 |
|-----------|----------|-------|------|---------|
| 자립의지 | 일반가정 청소년 | 2.92 | .59 | -.527 |
| | 시설보호 청소년 | 3.02 | .75 | |
| 진로직업역량 | 일반가정 청소년 | 3.19 | .62 | -1.914 |
| | 시설보호 청소년 | 3.37 | .54 | |
| 경제관리 | 일반가정 청소년 | 3.31 | .70 | -1.923 |
| | 시설보호 청소년 | 3.53 | .73 | |
| 주거일상생활관리 | 일반가정 청소년 | 3.19 | .62 | -1.914 |
| | 시설보호 청소년 | 3.37 | .54 | |
| 사회적 기술 | 일반가정 청소년 | 3.02 | .65 | -5.760* |
| | 시설보호 청소년 | 3.63 | .66 | |
| 학업관리 | 일반가정 청소년 | 2.72 | .73 | -2.338* |
| | 시설보호 청소년 | 3.00 | .82 | |

*p<.05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시설보호 청소년은 52명이며, 지니고 있지 않은 일반 가정 청소년은 148명이다. 구조적 취약성 유무에 따른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기술과 학업관리 영역이 p<.05수준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술 영역에서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이 평균 3.63점으로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지 않은 집단의 3.02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t=-5.760, p<.05)

학업관리 영역에서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이 평균 3.00점으로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지 않은 집단의 평균 2.72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t=-2.338, p<.05)

다른 영역에서도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의 평균이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지 않은 집단에 비해 평균이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나타났다.

2) 경제적 취약성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 하위요인 차이

경제적 취약성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 하위요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과 지니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경제적 취약성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도 차이

| 자립준비하위요인 | 대상 | 평균(점) | 표준편차 | t값 |
|----------|------------|-------|------|---------|
| 자립의지 | 비수급 대상 청소년 | 2.89 | .57 | -2.629* |
| | 수급대상 청소년 | 3.13 | .69 | |
| 진로직업역량 | 비수급 대상 청소년 | 2.89 | .52 | -1.444 |
| | 수급대상 청소년 | 3.13 | .63 | |
| 경제관리 | 비수급 대상 청소년 | 3.42 | .72 | 1.431 |
| | 수급대상 청소년 | 3.27 | .70 | |
| 주거일상생활관리 | 비수급 대상 청소년 | 3.30 | .63 | 2.025* |
| | 수급대상 청소년 | 3.13 | .76 | |
| 사회적 기술 | 비수급 대상 청소년 | 3.09 | .63 | -3.950* |
| | 수급대상 청소년 | 3.42 | .76 | |
| 학업관리 | 비수급 대상 청소년 | 2.74 | .70 | -1.141 |
| | 수급대상 청소년 | 2.87 | .85 | |

*p<.05

경제적 취약성을 지닌 수급 대상 청소년은 78명이며, 지니고 있지 않은 비수급 대상 청소년은 122명이다. 경제적 취약성 유무에 따른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립의지, 주거일상생활관리 사회적 기술이 p<.05수준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립의지 영역에서는 경제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의 평균이 3.13점으로 경제적 취약성을 지니지 않은 집단의 평균 2.8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2.629, p<.05)

사회적 기술 영역에서는 경제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의 평균이 3.42점으로 경제적 취약성을 지니지 않은 집단의 평균 3.0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3.950,

p<.05)

반면 주거일상생활관리 영역에서는 경제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의 평균이 3.13점으로 경제적 취약성을 지니지 않은 집단의 평균 3.30점보다 낮게 나타났다.(t=2.025, p<.05)

이 밖에 진로직업역량, 학업관리영역에서는 경제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의 평균이 경제적 취약성을 지니지 않은 집단에 비해 평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관리 영역에서는 반대로 경제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의 평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나타났다.

3) 학업적 취약성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 하위요인 차이

학업적 취약성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 하위요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업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과 지니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학업적 취약성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도 차이

| 자립준비하위요인 | 대상 | 평균(점) | 표준편차 | t값 |
|----------|----------|-------|------|--------|
| 자립의지 | 재학청소년 | 3.16 | .72 | 3.998* |
| | 학교 밖 청소년 | 2.83 | .48 | |
| 진로직업역량 | 재학청소년 | 3.05 | .58 | 4.360* |
| | 학교 밖 청소년 | 2.71 | .51 | |
| 경제관리 | 재학청소년 | 3.46 | .70 | 1.911* |
| | 학교 밖 청소년 | 3.27 | .71 | |
| 주거일상생활관리 | 재학청소년 | 3.54 | .66 | 8.194* |
| | 학교 밖 청소년 | 2.83 | .56 | |
| 사회적 기술 | 재학청소년 | 3.54 | .66 | 8.194* |
| | 학교 밖 청소년 | 2.83 | .56 | |
| 학업관리 | 재학청소년 | 3.00 | .81 | 3.872* |
| | 학교 밖 청소년 | 2.59 | .66 | |

*p<.05

학업적 취약성을 지닌 학교 밖 청소년은 102명이며, 지니고 있지 않은 재학 청소년은 98명이다. 학업적 취약성 유무에 따른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하위요인에서 $p < .05$ 수준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립의지 영역에서는 학업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의 평균이 2.83점으로 학업적 취약성을 지니지 않은 집단의 평균 3.16점보다 낮게 나타났다.($t=3.998$, $p < .05$)

진로직업역량 영역에서는 학업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의 평균이 2.71점으로 학업적 취약성을 지니지 않은 집단의 평균 3.05점보다 낮게 나타났다.($t=4.360$, $p < .05$)

경제관리 영역에서는 학업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의 평균이 3.27점으로 학업적 취약성을 지니지 않은 집단의 평균 3.46점보다 낮게 나타났다.($t=1.911$, $p < .05$)

주거일상생활관리 영역에서는 학업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의 평균이 2.83점으로 학업적 취약성을 지니지 않은 집단의 평균 3.54점보다 낮게 나타났다.($t=8.194$, $p < .05$)

사회적 기술 영역에서는 학업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의 평균이 2.83점으로 학업적 취약성을 지니지 않은 집단의 평균 3.54점보다 낮게 나타났다.($t=8.194$, $p < .05$)

학업관리 영역에서는 학업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의 평균이 2.59점으로 학업적 취약성을 지니지 않은 집단의 평균 3.00점보다 낮게 나타났다.($t=3.872$, $p < .05$)

4) 규범적 취약성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 하위요인 차이

규범적 취약성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 하위요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규범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과 지니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6 규범적 취약성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도 차이

| 자립준비하위요인 | 대상 | 평균(점) | 표준편차 | t값 |
|----------|-------------|-------|------|--------|
| 자립의지 | 일반 청소년 | 3.07 | .73 | 2.249* |
| | 보호관찰 처분 청소년 | 2.86 | .44 | |
| 진로직업역량 | 일반 청소년 | 3.26 | .59 | .632 |
| | 보호관찰 처분 청소년 | 3.20 | .62 | |
| 경제관리 | 일반 청소년 | 3.38 | .68 | .431 |
| | 보호관찰 처분 청소년 | 3.34 | .76 | |
| 주거일상생활관리 | 일반 청소년 | 3.26 | .59 | .478 |
| | 보호관찰 처분 청소년 | 3.20 | .62 | |
| 사회적 기술 | 일반 청소년 | 3.39 | .75 | 5.376* |
| | 보호관찰 처분 청소년 | 2.87 | .51 | |
| 학업관리 | 일반 청소년 | 2.97 | .78 | 4.001* |
| | 보호관찰 처분 청소년 | 2.54 | .67 | |

*p<.05

규범적 취약성을 지닌 보호관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81명이며, 일반 청소년은 119명이다. 규범적 취약성 유무에 따른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립의지, 사회적 기술, 학업관리 영역에서 p<.05수준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립의지 영역에서는 규범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의 평균이 2.86점으로 규범적 취약성을 지니지 않은 집단의 평균 3.07점보다 낮게 나타났다.(t=2.249, p<.05)

사회적 기술 영역에서는 규범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의 평균이 2.87점으로 규범적 취약성을 지니지 않은 집단의 평균 3.39점보다 낮게 나타났다.(t=5.376, p<.05)

학업관리 영역에서는 규범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의 평균이 2.54점으로 규범적 취약성을 지니지 않은 집단의 평균 2.97점보다 낮게 나타났다.(t=4.001, p<.05)

진로직업역량, 경제관리, 주거일상생활관리 영역에서도 규범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의 평균이 지니지 않은 집단의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 자립준비 하위요인의 차이

각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 자립준비 하위요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 경제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 학업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 규범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으로 나누어 F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7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의 자립준비 하위요인 차이

| 자립준비 하위요인 | 제공합 | df | 평균제공 | F | 유의확률 |
|-----------|--------|----|--------|--------|-------|
| 자립의지 | 5.324 | 3 | 1.775 | 5.218 | .002* |
| 진로직업역량 | 1.960 | 3 | .653 | 1.689 | .169 |
| 경제관리 | 2.616 | 3 | .872 | 1.645 | .179 |
| 주거일상생활관리 | 1.960 | 3 | .653 | 1.689 | .169 |
| 사회적 기술 | 35.151 | 3 | 11.717 | 30.136 | .000* |
| 학업관리 | 10.401 | 3 | 3.467 | 6.258 | .001* |

*p<.05

F검증을 실시한 결과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에는 자립의지(F=5.218, p<.05), 사회적 기술(F=30.136, p<.05), 학업관리(F=6.258, p<.05)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로직업역량, 경제관리, 주거일상생활관리 요인에서는 각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자립의지, 사회적 기술, 학업관리 요인에 대해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 경제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 학업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 규범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 자립의지 요인 차이

각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 자립의지 요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ukey기법을 이용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 IV-8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 자립의지 요인의 차이

| 다중비교 | | | | |
|-------------|---------|----------|------|------|
| 종속 변수: 자립의지 | | | | |
| (I)취약성 | (J)취약성 | 평균차(I-J) | 표준오차 | 유의확률 |
| 구조적 취약성 | 경제적 취약성 | -.105 | .104 | .742 |
| | 학업적 취약성 | .209 | .098 | .149 |
| | 규범적 취약성 | .161 | .103 | .404 |
| 경제적 취약성 | 구조적 취약성 | .105 | .104 | .742 |
| | 학업적 취약성 | .315* | .087 | .002 |
| | 규범적 취약성 | .267* | .092 | .021 |
| 학업적 취약성 | 구조적 취약성 | -.209 | .098 | .149 |
| | 경제적 취약성 | -.315* | .087 | .002 |
| | 규범적 취약성 | -.048 | .086 | .944 |
| 규범적 취약성 | 구조적 취약성 | -.105 | .104 | .404 |
| | 경제적 취약성 | -.267* | .092 | .021 |
| | 학업적 취약성 | .048 | .086 | .944 |

*p<.05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 자립의지 요인의 차이를 측정한 결과 경제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의 자립의지 요인의 평균이 학업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평균차 = .315, p<.05)과 규범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평균차=.267, p<.05)의 자립의지 요인의 평균 보다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 학업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 규범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 자립의지 요인의 평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 사회적 기술 요인의 차이

각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 사회적 기술 요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ukey기법을 이용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9와 같다.

표 IV-9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 사회적 기술 요인의 차이

| 다중비교 | | | | |
|---------------|---------|----------|------|------|
| 종속 변수: 사회적 기술 | | | | |
| (I)취약성 | (J)취약성 | 평균차(I-J) | 표준오차 | 유의확률 |
| 구조적 취약성 | 경제적 취약성 | .214 | .111 | .222 |
| | 학업적 취약성 | .813* | .105 | .000 |
| | 규범적 취약성 | .762* | .110 | .000 |
| 경제적 취약성 | 구조적 취약성 | -.214 | .111 | .222 |
| | 학업적 취약성 | .599* | .093 | .000 |
| | 규범적 취약성 | .548* | .098 | .000 |
| 학업적 취약성 | 구조적 취약성 | -.813* | .105 | .000 |
| | 경제적 취약성 | -.599* | .093 | .000 |
| | 규범적 취약성 | -.051 | .092 | .945 |
| 규범적 취약성 | 구조적 취약성 | -.762* | .110 | .000 |
| | 경제적 취약성 | -.548* | .098 | .000 |
| | 학업적 취약성 | .051 | .092 | .945 |

*p<.05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 사회적 기술 요인의 차이를 측정한 결과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의 사회적 기술 요인의 평균이 학업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평균차=.813, p<.05)과 규범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평균차=.762, p<.05)의 사회적 기술 평균 보다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의 사회적 기술 요인의 평균은 학업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평균차=.599, p<.05)과 규범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평균차=.548, p<.05)의 사회적 기술 요인의 평균 보다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과 경제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 사회적 기술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학업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과 규범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 사회적 기술의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학업관리

각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 학업관리 요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ukey 기법을 이용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표 IV-10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 학업관리 요인의 차이

| 다중비교 | | | | |
|-------------|---------|----------|------|------|
| 종속 변수: 학업관리 | | | | |
| (I)취약성 | (J)취약성 | 평균차(I-J) | 표준오차 | 유의확률 |
| 구조적 취약성 | 경제적 취약성 | .124 | .133 | .744 |
| | 학업적 취약성 | .414* | .126 | .006 |
| | 규범적 취약성 | .466* | .132 | .003 |
| 경제적 취약성 | 구조적 취약성 | -.134 | .133 | .744 |
| | 학업적 취약성 | .279 | .111 | .060 |
| | 규범적 취약성 | .331* | .118 | .027 |
| 학업적 취약성 | 구조적 취약성 | -.414* | .126 | .006 |
| | 경제적 취약성 | -.279 | .111 | .060 |
| | 규범적 취약성 | .052 | .110 | .965 |
| 규범적 취약성 | 구조적 취약성 | -.466* | .132 | .003 |
| | 경제적 취약성 | -.331* | .118 | .027 |
| | 학업적 취약성 | -.052 | .110 | .965 |

*p<.05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 학업관리 요인의 차이를 측정된 결과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의 학업관리 요인의 평균이 학업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평균차=.414, p<.05)과 규범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평균차=.466, p<.05)의 학업관리 평균 보다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의 학업관리 요인의 평균은 규범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평균차=.331, p<.05)의 학업관리 요인의 평균보다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취약청소년의 취약성에 따른 자립준비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자립준비 하위요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 취약청소년의 취약성에 따른 자립준비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전체 자립준비도는 3.07점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2013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취약청소년의 전체 자립준비도가 3.23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본 연구대상자의 자립준비도는 낮은 편이다.

취약성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도를 측정한 결과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은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지 않은 집단에 비해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과 규범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의 자립준비도는 각 취약성을 지니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립준비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취약청소년 중에서도 양육시설 청소년들의 자립준비도가 높다고 밝힌 배주미, 김범구, 김영화, 정익중(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각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의 차이에서도 구조적 취약성이나 경제적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이 학업적 취약성이나 규범적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에 비해 자립준비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과 경제적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의 자립준비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립준비 수준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 빈곤에 따른 경제적 취약성과 가정 해체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은 밀접한 정적관계가 있기 때문이며, 강복정(2001)과 노혁(2004)의 연구와 일부 일치한다.

강복정(2001)은 청소년의 시설입소 원인에 대해 가정 파탄, 결손 가정 또는 가정 빈곤이 큰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노혁(2004)은 빈곤계층 청소년들은 대체로 결손 가정 내에 생활하고 있으며 가족성원으로부터 심리·정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친사회적 가치를 내면화할 자원이 부족하였고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적 생활을 하는 청소년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시설보호 청소년이 체계적인 자립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자립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빈곤가정 청소년들의 자립에 대한 관심도 오래전부터 이어오면서 미흡하긴 하지만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지자체, 복지관, 청소년 자활지원관 등의 기관을 중심으로 자립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97년부터 청소년 자활지원관을 지정하고 확대 운영함에 따라 빈곤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립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김희성, 2002).

학업적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과 규범적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간의 자립준비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립준비 수준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각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의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정 결손이나 학업 중단이라는 생활 환경이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학업중단은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학교에서 친구·교사와의 공동 생활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는 대신 비행 환경에 노출될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이는 비행과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김선경(2013)의 견해와 일부 일치한다.

둘째, <연구문제 2>취약청소년의 취약성에 따라 자립준비 하위요인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취약성의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 하위요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조적 취약성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 하위요인의 수준을 파악한 결과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은 6개의 자립준비 하위요인에서 모두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적 기술과 학업관리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자립준비 하위요인의 평균을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았을 때 사회적 기

술-경제관리-진로직업역량, 주거일상생활관리-자립의지-학업관리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기술 요인이나 경제관리 요인에 비해 학업관리, 주거일상생활관리, 자립의지 요인의 수준이 미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시설보호 청소년들은 자원을 습득, 이용하고 할당하는 자원관리기술에 비해 계획, 의사결정, 책임감, 대인관계기술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기관리기술의 준비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기관리 기술의 발달이 필요하다는 신혜령(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들은 시설에 보호된 기간이 오래될수록 의존성이 강하여 수동적 사고와 행동을 보이게 됨으로서 자립의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자립준비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능동적인 자립 준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취약한 자립준비 하위요인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적 취약성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 하위요인의 수준을 파악한 결과 경제적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은 자립의지, 주거일상생활관리, 사회적 기술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기술과 자립의지 요인은 높게 나타난 반면, 주거일상생활관리 요인에서는 경제적 취약성을 지니지 않은 청소년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자립준비 하위요인별 평균을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았을 때 사회적 기술-경제관리-자립의지, 주거일상생활관리, 진로직업역량-학업관리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기술, 경제관리 요인에 비해 학업관리, 진로직업역량, 주거일상생활관리 요인의 수준이 미흡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빈곤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요인 중 사회적응기술과 금전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노혁(2004)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빈곤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연구로 인하여 비교적 사회적응 기술과 금전적 지원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있으며, 진로직업역량 요인에 대한 지원은 아직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립준비에 취약한 영역에 대해서 취약한 원인을 파악하고 자립 준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학업적 취약성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 하위요인의 수준을 파악한 결과 학업적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은 모든 자립준비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자립준비 하위요인별 평균을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았을 때 경제관리-주거 일상생활관리, 사회적 기술-자립의지-진로직업역량-학업관리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관리, 주거일상생활관리 요인에 비해 학업관리, 진로직업역량, 자립의지 요인의 수준이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미래와 현실에 대한 막막함을 느끼며, 진로와 교육에 대한 욕구가 많다는 오현애(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전반적으로 학업적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들은 자립준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자립 준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

규범적 취약성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 하위요인의 수준을 파악한 결과 규범적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은 자립의지, 사회적 기술, 학업관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규범적 취약성을 지니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자립준비 하위요인별 평균을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았을 때 경제관리-진로 직업역량, 주거일상생활관리-사회적 기술-자립의지-학업관리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관리, 진로직업역량 요인에 비해 학업관리, 자립의지, 사회적 기술 요인의 수준이 미흡에 나타나고 있으며,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 및 직업교육이 필요하며 재사회화에 실패하고 재범죄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가족 간의 관계 회복 및 자존감 향상이 필요하다는 조경미(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소속감 부재 및 충동성 등의 심리적인 요인에 따른 비행이 증가함에 따라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는 취약한 영역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대인관계 및 사회적 기술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지금까지 취약성의 유무에 따른 자립준비 하위요인 분석을 통하여 각 취약성에 따라 자립준비 하위요인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각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 자립준비 하위요인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자립의지, 사회적 기술, 학업관리 요인에서 각 취약성을 지닌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하위요인들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기술과 학업관리 요인에서 학업적 취약성, 규범적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에 비해 자립준비 수준이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시설 보호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심리·사회적 지원체계가 현저히 결핍된 상태에서 높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 자립의지와 자존감이 낮고 사회적 기술, 일상생활 관리 등에서 주도적으로 탐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밝힌 연구 결과(변은영, 2007; 신혜령, 2001)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2005년부터 집중적으로 양육시설 청소년들에게 자립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본적인 자립 열망을 갖추게 되었으며, 자아존중감·진로성숙수준·정서적 안정감이 일반 청소년과 유사한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배주미, 정익중, 김범구, 김영화, 2010).

경제적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의 경우 자립의지, 사회적 기술 요인에서 학업적 취약성, 규범적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에 비해 자립준비도가 높았으며, 학업관리 요인에서도 규범적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에 비해 자립준비도가 높았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학업적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의 자립준비 하위요인의 평균이 다른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의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배주미, 정익중, 김범구, 김영화(2010)의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구조적 취약성이나 경제적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에 비해 생계유지가 안정적일 수 있지만, 오히려 가정 내 안주하면서 외부 접촉을 차단하는 사례들이 많아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규적인 학교제도를 통한 사회화 과정 및 자립역량 개발을 스스로 거부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자립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규범적 취약성을 가진 청소년의 자립준비 하위요인의 평균들도 자립준비도가 낮게 측정되었으며, 다른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에 비해 자립준비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을 잘 통제하지 못하여 자신에게 생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 민순덕(2008)의 연구결과가 일치한다. 더욱이 규범적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들은 집단 활동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학

교를 나오는 사례가 많으며 학업적 취약성과 함께 자립준비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

종합적으로 각 취약성에 따라 자립준비 수준과 자립준비 하위요인의 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며, 각 취약성을 지닌 집단의 자립준비 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자립 준비가 지원됨으로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개입이 필요하다.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과 경제적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들은 정규교육과정을 수행하는 청소년이 많았고 학업적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과 규범적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많았다.

따라서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일수록 자립 지원의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지 부족이나 외부와의 차단 혹은 불안정한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기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반면, 결손 및 시설보호, 빈곤, 비행으로 인해 자립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최근 자립에 대한 정책적 변화에 따라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며, 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 사례 관리가 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는 실제적인 자립 준비 과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강화하고 더욱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지원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지역에 한정하였으므로 본 연구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여 연구대상의 대표성을 높이고 일반화시키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연령에 따라서 준비해야하는 자립과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취약성에 따른 자립준비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립준비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자기보고식 검사이기 때문에 실제 준비과정이나 타인의 보고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연구의 객관성을 더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취약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을 나누어 표집

하는 비비레 유층표집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한 개 이상의 취약성을 지닌 연구 대상자가 있음에 따라 취약성에 따른 자립준비도의 차이를 객관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일반 청소년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취약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차이를 연구를 하면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청소년의 취약성에 따른 자립준비도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취약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자립영역에 대해서 파악하였고, 취약청소년이 지닌 취약성에 따라 어떠한 자립영역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 했다.

둘째, 기존에는 연구자들이 정의한 자립의 개념에 따라 자립준비 영역을 설정하고 준비 수준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따라 취약청소년에게 필요한 자립준비 수준을 파악하는데 제한적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 가지 척도를 가지고 다양한 취약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립준비도를 측정함으로써, 취약청소년 유형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제 현장에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복정(2000). 시설청소년을 위한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사회적응 및 건강가정형성교육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 강영주(2009). 교육소외계층의 교육지원방안.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강은정(2000). 사회적 지지가 가출청소년의 일에 대한 태도, 자립의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가출청소년 부랑경험의 정도와 형태별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구본용(1992). 집단상담 및 훈련프로그램의 활용.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권미화,이기춘(2000). 청소년 소비자의 소비행동의 합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6, 175-190.
- 권혜수, 조규필, 김범구, 허진석, 윤현선(2008). 위기청소년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두드림존 프로그램 특성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44, 6-24.
- 김남욱(2008). 가출청소년의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중장기청소년쉼터를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김배현(2000). 아동복지시설 내 청소년의 사회성 차이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선경(2013). 가정결손 및 학업중단 비행청소년의 성격특성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정연, 하지선, 김인숙(2011). 시설 십대 청소년의 자립척도 개발: 십대 여성지원시설 입소 및 이용자를 중심으로. 청소년 복지연구, 13(2), 23-53.
- 김희성(2002).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 임파워먼트의 매겨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지혜(2005).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한국청소년연구, 16(2), 207-234.
- 노 혁(2004).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방향 - 생활 및 자립지원시설 실태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1(1), 94-117.
- 민순덕(2009).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인문학교육프로그램의 개

- 발과 효과성 연구.**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 박선영(2005). **그룹홈 거주 청소년들의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 박은선(2005).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일반주의 실천 접근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창남(2009). **빈곤이 청소년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6(1), 73-87.
- 배주미,김범구,김영화,정익중(2010). **취약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개발.** *청소년상담연구*, 157, 1-53.
- 변숙영,이수경, 이종범(2009) **취약청소년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실태와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변숙영,이수경(2011). **학업중단 청소년의 직업기초능력 실태 및 지원방안.** *교육문화연구*, 17(2), 283-302.
- 변은영(2007). **시설 청소년의 퇴소준비 자립프로그램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신혜령(2001). **시설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시설청소년과 생활복지사의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오수생,변상해(2012). **가출위기청소년의 자립생활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 체계적 변인연구 - 쉼터 청소년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7(2), 195-205.
- 오승근(2009).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국가 정책의 비판적 고찰 :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지*, 6(4), 1-21.
- 오승환(2001). **저소득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오현애(2002). **학교중퇴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 연구 - 학교중퇴 청소년의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욕구조사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경상(201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실태.** *청소년학연구*, 18(10), 341-362.
- 이경상,조혜영(2005).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 및 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8(2), 19-38.
- 이소영(2000). **학교중단 청소년의 중퇴 이후 적응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숙영,이재규,박승민,최은영(1996). **비행청소년상담프로그램.** 서울; 청소년대화

- 의 광장.
- 이중윤(2002). **결손가정 아동이 지각한 보호자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특성**.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화련(2007). **비행청소년의 구조적 결손가정 유무와 비행 행동에 따른 성격특성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호동(2009). **자립의지증진 집단 상담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립의지 및 자아효능감 증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 이희연(2005).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 정문진(2012). **가출청소년의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가출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 조경미(2010). **소년원 퇴원생의 재사회화 과정**.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조규필(2013).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도 척도개발 및 타당화**. 중앙대학교 대학원.
- 주금옥(2002). **정규교육 중도탈락 청소년의 진로장애 지각에 관한 탐색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진경숙(2010). **비행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범죄예방위원의 개입활동 연구**.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 최경아(2007).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일반가정 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 최보영(2013).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내·외적 직업가치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21, 172-203.
- 최순중(2004). **청소년 소비 연구를 위한 이론적·방법론적 모색 : 한국과 독일 청소년의 대리만족적 소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1(3), 445-469.
- 홍진희(2007). **청소년의 과소비 성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미정(2009). **빈곤청소년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개인적 변인, 환경적 변인, 진로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한국청소년상담원(2007). **두드림존 프로그램 매뉴얼 1단계**. 한국청소년상담원.

<Abstract>

Differences in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Depending on the Vulnerability of Vulnerable Adolescents

Yong Lee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University

Advisor, Sung-Bong, Kim

This study* aims to look at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in vulnerable adolescents and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the degree and sub-factors of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depending on their vulnerability. By doing so, this research attempts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s in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in vulnerable adolescents depending on their vulnerability. To achieve these aims, the present study set up specific research questions as below.

The first research question was if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depending on the vulnerability of vulnerable adolescents. The hypothesis to this question wa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depending on the vulnerability of vulnerable adolescents.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was if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ub-factors of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depending on the vulnerability of

* This thesis submitted to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4.

vulnerable adolescents. The hypothesis to this question wa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ub-factors of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depending on the vulnerability of vulnerable adolescents.

To test these hypotheses, this research categorized vulnerable adolescents residing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to subgroups including structural vulnerability, economic vulnerability, academic vulnerability, and normative vulnerability. Subjects were selected through non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to secure representative samples of each subgroup. Investigations were carried out based on the reconstruction of 6 areas of the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scale developed by Gyu-pil Jo (2013) including the will to live independently, the capacity for career and vocation, economical management, management of housing and daily life, social skill, and management of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8.0K for Window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hypothesis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depending on the vulnerability of vulnerable adolescent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structural, academic, and normative vulnerability.

Second, regarding the hypothesis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ub-factors of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depending on the vulnerability of vulnerable adolescent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vulnerability and among different subgroups.

These results will help understand differences in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depending on the vulnerability of vulnerable adolescents.

Consequently, by using independent living support model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recipients in actual situations, it will be possible to provide them with professional services.

부 록

자립준비도 척도

안녕하세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질문지는 청소년 여러분들의 어떻게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며, 응답내용은 본 연구 이외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이용(010-5733-0105, zleez@hanmail.net)

I. 다음은 청소년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란에 표시하거나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 | |
|------------|--|
| 당신의 성별은? |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
| 당신의 나이는? | 만 _____ 세 |
| 당신의 상태는? | <input type="checkbox"/> 재학생 <input type="checkbox"/> 학업중단 무직청소년 |
| 당신의 경제수준은? |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수급 |
| 당신의 가족형태는? | <input type="checkbox"/> 일반가정 <input type="checkbox"/> 시설가정 |
| 보호관찰 유무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II. 다음은 청소년의 현재 자립준비 수준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오른쪽 1~5점 사이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다소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문항 | 1 | 2 | 3 | 4 | 5 |
|--|---|---|---|---|---|
| A1. 나는 자립하는데 있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자신이 있다. | | | | | |
| A2. 나는 어떻게든 나에게 닥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 | | | | |
| A3. 나는 혼자 힘으로 어떤 일이든지 해낼 자신이 있다. | | | | | |
| A4. 나는 앞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 | | | | |
| B1.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 | | | | |
| B2. 나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 | | | | |
| B3. 나는 나의 성격이나 적성에 잘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 | | | | |
| B4. 나는 직업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 | | | |
| B5. 나는 직업 자체가 내 인생에서 의미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 | | |
| B6. 나는 직업을 통해 나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 | |
| B7. 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다. | | | | | |
| B8. 나는 입사 면접에 임하는 요령을 알고 있다. | | | | | |
| B9. 나는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권리를 알고 있다. | | | | | |
| B10. 나는 관심있는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다. | | | | | |
| B11. 나는 관심있는 직업분야의 직업인을 직접 만나 궁금한 점들을 알아 본 적이 있다. | | | | | |
| B12. 나는 관심있는 직업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둘러보거나 직업 체험을 해 본 적이 있다. | | | | | |
| C1. 나는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 | | | | |
| C2. 나는 어떤 경우에 신용등급이 떨어지는지 알고 있다. | | | | | |
| C3. 나는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떤 제한이 있는지 알고 있다. | | | | | |

| 문항 | 1 | 2 | 3 | 4 | 5 |
|--|---|---|---|---|---|
| C4. 나는 자립을 위해 저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 | | | |
| C5. 나는 돈을 모으기 위해 저축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생각이 다. | | | | | |
| C6. 돈은 버는 것보다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 | | | |
| C7. 나는 마음에 드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품질과 가격을 비교 할 수 있다. | | | | | |
| C8. 나는 광고나 주변사람의 유혹에도 쉽게 충동구매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 | | | | |
| C9. 나는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할인 여부를 확인할 생각이다. | | | | | |
| D1. 나는 주거마련 비용을 대략 알고 있다. | | | | | |
| D2. 나는 정부의 주거지원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다. | | | | | |
| D3. 나는 주택 임대 계약시 주의사항을 알고 있다. | | | | | |
| D4. 나는 전세 계약 후,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제일 처음 해야 하는 신고절차를 알고 있다. | | | | | |
| D5. 나는 기본적인 식탁예절을 지킬 수 있다. | | | | | |
| D6. 나는 위생적인 설거지를 할 수 있다. | | | | | |
| D7. 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을 알고 있다. | | | | | |
| D8. 나는 고른 영양섭취를 위한 식단을 짤 수 있다. | | | | | |
| D9. 나는 밥이나 찌개 등 기본 음식을 조리할 수 있다. | | | | | |
| D10. 나는 인터넷이나 요리책 등의 레시피(조리방법 소개)를 활용 하여 음식을 만들 수 있다. | | | | | |
| D11. 나는 식품을 살 때 유통기한을 확인할 생각이다. | | | | | |
| D12. 나는 외출할 때 가스불, 전기, 수도 잠금상태를 잘 확인할 수 있다. | | | | | |
| D13. 나는 외출 혹은 취침시에 문단속(현관문, 창문)을 잘 할 수 있 다. | | | | | |
| E1. 나는 사회에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외모를 관리한다. | | | | | |
| E2. 나는 상황(식사초대, 면접, 데이트 등)에 따라 옷 입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 | | | | |
| E3. 나는 건전한 대인관계(친구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없다. | | | | | |
| E4. 나는 사람들과의 갈등 해결방법을 알고 있다. | | | | | |
| E5. 나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절(인사, 전화 등)을 지킬 줄 안 다. | | | | | |
| E6. 나는 생산적인 시간과 소비적인 시간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 | | | | |
| F1. 나는 학업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다. (예: 상급학교 진학, 편입학, 재입학, 검정고시 정보) | | | | | |
| F2. 나는 학습에 효과적인 암기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 | | | | | |
| F3. 나는 학습에 효과적인 읽기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 | | | | | |
| F4. 나는 시험준비 방법과 시험 요령에 대해 알고 있다. | | | | | |